

HRI 체어퍼슨노트

# CHAIRPERSON NOTE

2012.04.02 (통권393호)



## 경제이슈

美 경기선행지수 상승세 지속  
2월 산업활동동향 양호한 성장

## 경영노트

스티브 잡스의 성공요인

## 사회 트렌드

캐나다 1센트 동전 사라진다

직원에게 가장 인기 있는 IT CEO는 애플의 팀 쿡

## 저널 브리프

온라인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 洗心錄

이 또한 지나가리라

□ 美 경기선행지수 상승세 지속

- 미국 컨퍼런스보드는 2월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비 0.7% 상승하여,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22일 발표함
  - 경기선행지수 동향 : 2011년 12월의 0.5%, 1월의 0.2%에 이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고용개선 및 소비자 심리 향상 등의 영향으로 2월 시장 전망치 0.6%를 상회함
  - 고용상황의 개선 : 미국 노동부는 주간신규실업수당신청건수<sup>1)</sup>가 지난 주 35만 9천명으로 전주 보다 5천명이 감소하는 등 2008년 2월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임을 발표함
  - 소비자 기대수준 향상 :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지수는 46.4에서 51.0으로 개선되었고,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경기선행지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과 소비심리는 아직 약세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경제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2월 산업활동동향 양호한 성장

-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건설투자 등 대부분의 실물 지표가 개선
  - 생산 : 제조업생산은 대표적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등이 호조를 보이며 전월대비 0.8% 상승
  - 소비 : 소매판매는 통신기기,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는 부진하였으나, 준내구재와 의복 등 비내구재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2.6% 상승
  - 투자 :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감소하여 전월대비 -5.4% 감소한 반면, 건설투자는 건축·토목공사가 호조를 보여 전월대비 10.7% 증가
- 국내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와 경기선행지수가 개선세를 보여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강화

1) 주간신규실업수당신청건수(Initial jobless claims)는 미국 노동부가 매주 목요일 발표하는 지수로서, 실업으로 인한 실업수당 신청건수를 나타냄

□ 스티브 잡스의 성공요인<sup>2)</sup>

- 스티브 잡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의 탁월한 업적에 주목하는 긍정적인 견해와 성격적인 결함에 치중하는 부정적인 견해로 구분됨
  - PC, 애니메이션, 음악,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전자출판, 소매업 등 많은 산업을 탈바꿈시킨 탁월한 성과는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
  -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그를 평가절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됨
- 스티브 잡스의 성격적 결함과 뛰어난 성과는 별개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 예를 들어 그의 무례한 태도나 현실을 왜곡하는 능력은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

< 스티브 잡스의 성공요인 >

	내 용
선택과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li> <li>• 잡스는 1997년 애플에 복귀하자마자 수십 가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소수의 제품에 역량을 집중하여 회사를 위기에서 구함</li> </ul>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화는 단순히 디자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제품을 이해하여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전략</li> <li>• 전자제품에는 반드시 ON/OFF 버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아이팟에서 전원 스위치를 제거</li> </ul>
완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완벽성에 초점을 둔 수익 창출 전략을 실시하여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li> <li>•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반대로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엔드투엔드(End to End)의 폐쇄형 방식을 채택</li> </ul>
인문과 기술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티브 잡스보다 뛰어난 기술자나 예술가는 있지만, 두 분야를 결합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데 있어 그보다 뛰어난 이는 없음</li> <li>•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시장조사에 의존한 수요파악보다는 인문학적 직관에 기반하여 의사결정</li> </ul>

2) 본 자료는 Harvard Business Review의 'The Real Leadership Lessons of Steve Jobs(April 2012)'를 요약정리함

□ 캐나다 1센트 동전 사라진다<sup>3)</sup>

- 캐나다 정부가 액면가보다 제조 원가가 비싸 경제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1센트 동전을 올해 4월까지만 생산하기로 함
  - 현재 캐나다 조폐국은 매년 7000톤 분량의 1센트짜리 동전을 제작
  - 그러나 1센트의 현재 가치는 원래 가치 구매력과 비교해 20분의 1 정도인 데다 동전 1개당 제작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 1.6센트에 달함
  - 이로 인해 캐나다 정부가 연간 1100만 달러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
- 캐나다 은행도 민간 분야에서 작은 동전을 저장하고 운반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2006년 기준 1억 50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
  - 캐나다 정부는 1센트 퇴치 대책으로 5센트 단위 거래를 유도한다는 계획

□ 직원에게 가장 인기 있는 IT CEO는 애플의 팀 쿡<sup>4)</sup>

- 美 경제전문지 포천은 미국 IT 기업 CEO의 직원 지지도 조사에서 쿡이 97%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발표
  - 해당 기업의 전·현직 직원들에게 ‘당신의 CEO가 회사를 이끌어나가는 방식에 찬성하느냐’고 질문해 응답자의 97%가 ‘그렇다’고 답함
  - 쿡의 지지도 97%는 전임자 스티브 잡스의 작년 점수 95%보다 높음
- ‘독불장군’ 잡스와 달리 쿡은 소통을 중시하는 경영자로 평가받고 있음
  - 그는 직원들과 이메일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회사의 중대 사안을 비밀리에 처리했던 잡스와 달리 회사의 인사계획 등을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
  - 쿡은 미국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에서도 1위를 기록
- 2위는 쉐컴의 폴 제이컵스(95%), 3위는 구글의 래리 페이지(94%), 4위는 인텔의 폴 오텔리니(93%), 5위는 VM웨어의 폴 마리치(90%)
  - CEO에 대한 직원 지지도가 높은 기업들은 대부분 지난해 뛰어난 경영 실적을 기록

---

3) “캐나다 1센트 동전 사라진다”(매일경제, 2012.3.31)

4) “애플 팀 쿡, 미 IT기업 직원 평가 최고 CEO”(한국경제, 2012.3.31)

□ 온라인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sup>5)</sup>

■ 온라인 회의는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우수한 회의 수단임

- ① **안건은 사전에 준비할 것** : 참석자들이 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참석자에게 회의 안건을 미리 보내야 함
  - 최소 하루 전에는 안건을 보내야 하고 적어도 회의 시작 15분 전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주제를 숙지하도록 해야 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② **회의의 보조 진행자를 지정할 것** : 진행자는 회의 진행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진행자를 미리 지정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함
  - 보조 진행자는 회의 시간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파일을 미리 준비해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음
- ③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는 것** : 참석자는 주변 소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스피커폰보다는 헤드셋 또는 핸드셋을 사용하여 회의에 참여해야 함
  - 회의에 사용되는 장비가 최소한의 품질을 갖추어야 참석자들의 회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음
- ④ **안건에서 벗어나지 말 것** : 진행자는 참석자들이 정해진 주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유의하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함
  - 시간 상 논의할 수 없는 사항들은 추후 회의 및 이메일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참석자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짐을 막을 수 있음
- ⑤ **참석자의 참여를 유도할 것** : 발표자는 프리젠테이션 시작 전에 토의 시간이 언제인지 미리 참석자들에게 알려줘야 함
  -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발표자는 더 많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음

---

5) '알찬 원격회의를 위한 7가지 제언'(한국아이디지, 2012.03.23) 참조

□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인의 지혜서인 <미드라시>에 이런 얘기가 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어느 날 궁중의 보석세공사를 불러 지시를 내렸다.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닐 만한 반지를 하나 만들고 그 반지에 글귀를 새겨 넣어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때 그 글귀를 보고 우쭐해 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견디기 힘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주는 글귀여야 한다.” 세공사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반지를 만들었지만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어떤 글귀를 새겨야 다윗 왕의 마음에 들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고민을 하다가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한참을 생각하던 솔로몬이 말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지금의 이 기쁨과 행복도 곧 지나갈 것이며 지금의 이 슬픔과 고통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므로, 너무 자만하거나 너무 낙담하지 말라는 솔로몬의 넉넉함을 엿볼 수 있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란 말이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이지 재앙이란 늘 겹쳐서 다가온다.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슬픔이 한없이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리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늘상 마음의 평온이 우리의 일상을 넉넉히 품어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링컨 또한 많은 실패를 경험한 뒤 그의 좌우명을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했다. 모든 것을 묵묵히 이겨낸 후 그는 결국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힘든 역경 앞에서 결코 좌절할 필요도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과 용기로 헤쳐 나가면 된다. 삶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묵묵히 나의 생과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당장 해결하기에 벅찬 어려움이 있는가? 죽도록 힘든 고통을 떨쳐버릴 수 없는가? 그럼 이렇게 외쳐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간이란 생각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이 지껄이게 된다.**

몽테스키외(1689-1755) : 프랑스 사상가